

사설

조계종 5개년계획에 바란다

지난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계획을 중단기적으로 밝혔다. 5개년계획은 크게 네 부문에 중점이 주어졌 있는데, 포교와 전법, 중무행정의 체계화, 승가교육의 제고, 사찰환경보존과 불교문화운동 등이 그것이다.

첫째, 포교와 전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불교인구의 결속과 저변확대를 위한 더없는 방편이다. 그동안 교육원과 포교원을 발원화하여 운영하며 '개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한 '전법 5개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종합회관을 건립하고, 중앙신도회를 결성하여 사찰 교구신도의 활동을 진작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격적 신도교육의 장으로서의 전법도장을 지역별로 지정, 지원하겠다고 한다.

둘째, 중무행정의 합리화와 체계화는 사부대중의 오랜 염원이었고, 그동안 불교계의 오랜 숙제였다. 삼보장제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전산화는 기본적인 장치이다. 종단의 재산뿐만 아니라 직할 지방교구 사찰 사안 등의 재산도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채 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감사를 정례화하고 유형별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셋째, 승가교육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총무원장은 승가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 식견의 양상을 위해 승가교육의 기초 기본 전문 재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 심화시켜야겠다고 했다. 행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학의 전통과 강맥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이며, 교수요원의 양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학림과 승가대학원에 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넷째, 사찰 환경보존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한

제반 사업을 구체화해나간다고 했다.

회견문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총무원의 노력을 알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우선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두가지 주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는 각각의 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안과 상세계획을 추가로 확정 발표해달라는 것이다. 그사이만 사업 사이의 연계와 체계를 확인 검증할 수 있고, 각 사업이 사부대중의 승인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주문인데, 총무원은 한국불교의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세기를 맞는 불교의 전망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승가교육과 포교에 있어 불교는 다가올 정보화와 탈산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구원의 기대를 어떻게 제시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불교의 발전은 교리 자체에 담긴 이론적 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불교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기존에 형성된 불교의 교리와 관행, 계율과 의식이 새로운 시공의 환경에 맞닥뜨리면서 창조적으로 자기변신한 결과이다.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은 불교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도 지금 불교는 여전히 '전통 강령교과목의 장점'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시대가 바뀌면 개달음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며 공유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개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이같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믿는다. 승가교육은 전통의 심화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와 학문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총무원의 발전계획에 승가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담기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전통교육도 보존할 수 있다.

열린마당

불교종합회관 건립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법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추진, 올해안에 착공에 들어가 99년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관건립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사 인근 4천여평의 부지에 들어설 불교종합회관은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최대의 불사가 될 것으로 보여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들의 기대와 함께 한국불교의 상징물을 세우는 불사에 걸맞는 준비과정과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사부대중의 구심처' 되도록 정성들여야

성일 (신홍사 침소년수련원장)

타종교에서도 부러워하는 견지동 불교거리에 조계사 부처님 도량이 성취되어 수많은 서울시민의 쉼터가 되는 그곳에 대규모 불교회관이 건립되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감동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먼저 조계사 도량 확장불사에 큰 원력으로 정진하시는 조계사 주지스님께 찬사를 보내드리며 이제까지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불교회관 건립을 시행하시는 개역종단의 집행부 스님들께 한없는 기쁜 마음을 드리고 싶다. 이 불사는 우리 종단의 힘을 모으는 구심처가 되어야 하는 중요사업인 만큼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다. 누구든지 이곳을 찾게되면 불교의 모든 불일들을

다 볼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처님이 계시니 예뻐드릴 수 있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함께 있어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고, KBS btv 신문사들이 한곳에 있어 매스컴 활용에 편리하고, 대법회 대음악제 세미나 등 큰 불교행사를 불교회관에서 하면서 일반인들은 불교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을 운영해 인생의 새 출발을 부처님 품속에서 시작하니 얼마나 좋은가.

또 도서관 전시실 등에서 불교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상설 상담실을 개설하여 불교에 관한 신앙 및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불교 전통식당과 찻집이 운영되어 편리함이 더해졌으면 한다.

여론수렴 미흡... "졸속불사 방지 감시하자"

성태웅 (건국대학교수·철학)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불사는 무엇인가? 천만 불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그 의식을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불사를 불교계의 힘을 모아 이룩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서 가장 마음을 써야하고 또 쓰고 있는 일은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무원에서 발표한 조계사 주변 4천여평을 확보하여 최대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이런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는 이미 시간이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큰 계획의 감

작스런 발표에 모든 불자들은 한편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 놀라고 어리둥절한 기분이 드는,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사정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이런 큰 불사계획이 나올 때마다, "이번의 일은 잘 될까?" 하던 불자들의 의구심이 이제는 엄한 감시의 눈으로 작용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이다.

과시적인 졸속불사의 예를 만들지 말고, 교계의 해독은 바람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면서, 또한 앞서가는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 참단의 시설들을 모아 불교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포교와 문화의 공간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



◇지난 75년 세워진 현 조계종 불교회관. 영육의 현대불교사찰을 간직한 이 건물은 곧 철거되고 현대식의 대규모 불교종합회관이 들어선다.

조정식 <동국대학교·건축공학>

옛 양식 답습 넘어 미래 불교의 지 답아야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건축에 있어서 세기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세기동안 축적된 기술과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1999년까지 현 조계사 경내에 불교종합회관이 건립된다고 한다. 21세기를 바라보는 또 한번의 세기말의 시점에서 한국 불교에 신기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기획사업일 뿐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현재의 건축기술을 응용한 전통건축의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현대적 의미의 불교건축이 실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불교계에서의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와 건축가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아직까지 불교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나치게 불교건축의 상징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옥의 지붕형태나 외벽에 돌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건축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까지의 방법을 답습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와 건축계에서 미래의 불교상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수의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설계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후세에 전할 불사(佛事)라는 차원에서 건축가에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건축가에게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주최측에서는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고철 111호 2면 '현대 민행'란에서 스님의 기사내용이 바뀌어 그려졌기에 비로잡습니다.

본사 사령

- 김주일
- 윤기석
- 김지연
- 김정은
- ▶ 편집국 취재부 수습기자 김종열
- ▶ 경영관리국 영업부 수습사원 남준우
- ▶ 편집국 전략정보기술팀 사원

(1997년 1월 25일자)

禪茶一如의 용거움
 茶園 4수정산 736-3782

현대만평

737-0691

현대만평



도심속의 안식처로...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지요. 어느쪽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아니다' (부조화)를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중요의 시대를 맞아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풍요속에서 '없다'는 것은 곧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저는 고대 증명했으니 일본같은 학력사회에서 볼때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에 속합니다. 가족도 초등학교시절에 불뿔이 흩어져 버려 없습니다. 중학교때엔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없다' 투성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도 '풍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아니다'는 '그렇다'이며, '없다'는 곧 '있다'입니다. '아무것도 없

있다. '아니다'에서 긍정을 찾고 '없다'에서 풍요와 자유를 찾는 것은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면서 절대 긍정의 세계로 들어가고, 비우고 또 비워 무소유 즉 텅 빈 충만이라는 공부와 다르지 않다.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다'며 집요하게 죽음을 생각한 것 역시 '나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정진이었다. 초등학교때부터 '이지메'를 당했으며, 밤중에 의로움 이 밀려왔을때 전화걸 친구조차 없었다는 柳. 그녀의 가슴속에 사무치게 각인된 '의로움' '가족부재' '애정결핍' '자살미수' 등은 그녀를 성숙시킨 화두였다. 참구하고 또 참구하여 결국 그녀는 주위의 박수속에 홀로 섰다. 립스틱을 바른지 않고도 기자회견에 나설 수 있을만큼 중심이 잡혀있었다.

柳美里씨의 화두

죽을 잘 그리면 국가와 민족이 나온다 고 봅니다. 가족은 작으면서도 매우 큰 단위입니다. 소설 '가족 시네마'로 일본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한 재일한국인2세 柳美里(28)씨의 말이다. 종교는 알수 없지만 그녀의 말에서는 불교적 사유(思惟)를 만날 수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전 연락주시면 1,000명분까지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솔암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보궁도 참배합니다."



도솔암 경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경내 도솔암 내관

선운사 도솔암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시해제일의 기도영험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진흥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천애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번엔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닦았고 도솔암 입구에 천여 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도솔암 가는길

- 승용차편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음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양사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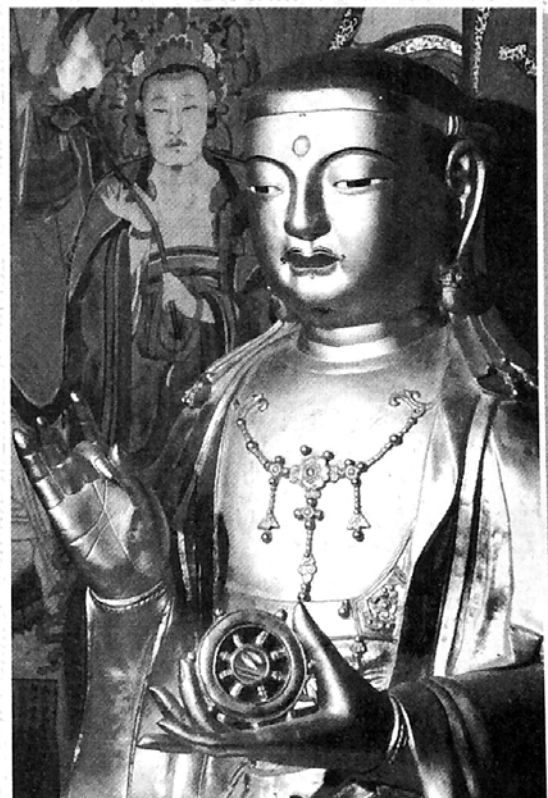
열차편 서울역~정음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음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버스편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이나 정음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사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 보궁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자연연락을 주시면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0677) 64-2861, 63-4612 팩스: (0677) 64-8317
 문의처 부산·경남: (051) 632-0383/대구·경북: (053) 255-2838/서울·경기: (02) 238-9910



도솔암 내관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